

그린에서 신지애!

그녀들의 투혼은 빛났다

빙상에서 김연아!

비회원 첫 LPGA 시즌 2승

15언더...2위와 무려 6타차
내년 신인왕·상금왕 노려
미즈노클래식 최종



신지애가 9일 일본 미에현 시마의 긴테쓰 가시고지마골프장에서 열린 LPGA 투어 미즈노클래식 최종 라운드 7번홀에서 이글을 잡아낸 뒤 주먹을 쥐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의 '지존'에서 세계의 '지존'으로 우뚝 설 날이 멀지 않았다.

내년에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 본격 진출하는 한국여자프로골프의 '지존' 신지애(20·하이마트·함평골프고졸)가 일찌감치 미국 무대 접수를 선언했다.

신지애는 9일 일본 미에현 시마의 긴테쓰 가시고지마골프장(파72·6천506야드)에서 열린 LPGA 투어 미즈노클래식 최종 라운드에서 5언더파 67타를 쳐 3라운드 합계 15언더파 201타로 정상에 올랐다.

신지애는 이로써 브리티시여자자오픈에 이어 LPGA 투어에서만 시즌 2승을 올려 세계 최정상급 선수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내년부터 LPGA 투어를 주무대로 삼을 계획인 신지애는 이번 우승으로 2009년 시즌 신인왕 후보를 넘어 상금왕을 넘볼 강호로 입지를 다졌다.

브리티시여자자오픈 우승으로 이미 LPGA 투어 입회 자격을 얻었지만 이 대회에 일본 여자프로골프투어 상금 랭킹 상위 선수 자격으로 출전한 신지애는 LPGA 투어에서 비회원으로 시즌 2승을 올리는 진기록을 남겼다.

LPGA 투어에서 비회원으로 2승을 따낸 선수는 고우순(44)에 이어 두번째이지만 같은 시즌에 두번 우승한 비회원은 신지애가 처음이다.

한국여자프로골프에서 7승, 일본여자프로골프투어에서 1승을 올린 신지애는 이번 우승으로 올해 10차례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특히 신지애는 1995년 고우순 이후 이 대회에서 사라졌던 한국인 챔피언의 명맥을 12년만에 다시 살려냈다.

신지애는 잠시 휴식을 취한 뒤 미국으로 건너가 21일부터 열리는 LPGA 투어 시즌 최종전인 ADT 챔피언십에서 시즌 세번째 우승에 도전한다.

올해 최종 라운드에서 한번도 역전패를 당한 적이 없는 '파이널컷' 신지애는 이날도 이렇다 할 위기가 없이 우승을 향해 줄달음 쳤다.

2타차 선두로 최종 라운드에 나선 신지애는 2번(파4), 3번홀(파4) 연속 버디로 일찌감치 추격자들의 의욕에 찬물을 끼얹었다.

7번홀(파5)에서 이글을 터트려 독주 체제를 굳힌 신지애가 13번홀(파5)에서 버디 퍼트를 성공시키자 공동2위 이지영(23·하

이마트), 핫토리 마야(일본)와 6타차로 벌어졌다. 신지애는 이후 보기와 버디를 하나씩 주고 받아 타수를 줄이지 못했지만 6타차라는 커다란 리드를 지켜 싱거운 우승 세리머니를 펼쳐야 했다. 오히려 치열했던 준우승 경쟁에서는 홈코스의 핫토리가 웃었다. 핫토리는 1언더파 71타를 쳐 최종 합계 9언더파 207타로 단독 2위에 올랐고 2타를 줄인 임은아(25)는 3위(8언더파 208타)를 차지했다. 준우승 경쟁을 벌이던 이지영은 막판에 나온 보기 2개에 발목이 잡혀 정일미(34·기아골프)와 함께 공동4위(7언더파 209타)로 내려 앉았다. /연합뉴스

LPGA 미즈노클래식 최종순위
1 신지애 -15 2098 66 67
2 핫토리 마야 -9 2097 63 71
3 임은아 -8 2088 70 70
4 정일미 -7 2007 69 68
... (rest of table content)

시리즈 5개 대회 연속 우승



그랑프리 시리즈 5개 대회 연속 우승의 쾌거를 달성한 김연아가 9일 오후 베이징 수도체육관에서 열린 시니어 피겨스케이팅 그랑프리 3차 대회 '컵 오브 차이나' 갈라쇼에서 아름다운 연기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2위 안도 미키와 21점차
당분간 독주시대 '활짝'
ISU '컵 오브 차이나'

강렬해지고 성숙함이 들쭉 뽀얀 물어오는 프로그램을 앞세워 2008-2009 시즌 그랑프리 시리즈 두 개 대회 연속 우승에 성공한 김연아(18·군포 수리고)가 피겨계의 아이콘으로 우뚝섰다.

김연아는 지난 8일 중국 베이징 수도체육관 특설 링크에서 치러진 대회 여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한 차례 트리플 러츠 실수로 1.60점 감점을 당했던 것을 빼고는 안벽에 가까운 연기로 지난 1차 대회(123.95점) 때보다 점수를 끌어올린 128.11점으로 가볍게 1위를 차지했다.

소프트프로그램에서 플립 점프의 롱 에지 관점으로 63.64점을 얻은 게 아쉬웠지만 총점 191.75점으로 2위 안도 미키(일본·170.88점)보다 무려 20.87점이 높은 완승이었다. 이로써 김연아는 1차 대회(193.45점)에 이어 3차 대회에서도 191.45점을 받아 이번 시즌 세 차례 치러진 그랑프리 시리즈를 통해 유일하게 190점대를 유지한 선수가 됐다.

김연아는 9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 갈라쇼 무대를 또 한 번 빛냈다. 부문별 1~5위 입상자들이 참가하는 갈라쇼에서 그는 전체 출연자 23명 가운데 22번째로 은반 위를 수놓았다. 푸른색 드레스를 단아하게 차려입은 김연아는 잔뜩 웅크린 자세에서 맨디 무어의 그윽한 음성에 맞춰 연기를 시작한 김연아는 몸을 풀듯이 트리플 살코우를 뛰고 나서 스핀 연기 이후 연달아 이어진 두 차례 더블 악셀까지 완벽하게 소화해 큰 박수를 받았다.

김연아가 이번 시즌 두 개 대회를 모두 우승으로 이끌었던 원동력은 역시 자신의 연기력을 최대한으로 끌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시니어 첫 무대인 2006~2007 그랑프리 2차 대회에서 동메달을 따낸 김연아는 4차 대회에서 마침내 첫 우승의 감격을 맛보고, 연거푸 이어진 그랑프리 파이널에서 금메달의 쾌거를 달성했다. 당시 프로그램은 정열적인 '룩산느의 탱고'(소프트프로그램)와 귀여운 이미지의 '종달새의 비상'(프리스케이팅). '룩산느 탱고'를 연기한 김연아는 2007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소프트프로그램 역대 최고점(71.95점)을 따냈다.

지난 시즌 김연아는 또 한 번 신신에 도전해 다소 경쾌한 '박쥐 서곡'(소프트프로그램)과 서정적인 '미스 사이공'(프리스케이팅)으로 그랑프리 두 개 대회와 그랑프리 파이널, 세계선수권대회 동메달의 성과를 거뒀다. /연합뉴스



부러운 시선들 김연아가운데가 지난 8일 여자 싱글 시상식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혜윤 10언더 우승
KLPGA 에쓰오일챔피언스

김혜윤(19·하이마트)이 한국여자프로골프 MBC투어 2008 왕중왕전 에쓰오일 챔피언스 인비테이셔널에서 첫 우승을 차지하며 신인왕 경쟁에도 불을 붙였다.

작년 2부 투어 상금랭킹 1위 김혜윤은 9일 제주 라온골프장(파72·6천299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3라운드에서 버디 4개, 더블보기와 보기 1개를 묶어 1타를 줄여 합계 10언더파 206타로 2위 권애리(18·하이마트)를 3타차로 여유있게 따돌렸다.

김혜윤은 이날 우승으로 신인왕 포인트 150점을 추가, 최혜용(18·LIG), 유소연(18·하이마트)과 시즌이 끝날 때까지 치열한 3파전을 예고했다. /연합뉴스

한국, 내일 우즈벡과 결승행 다름

일본 3-0 완파...4강 안착
아시아축구연맹 U-19 선수권

한국이 '숙적' 일본을 제물 삼아 2008 아시아축구연맹(AFC) 19세 이하(U-19) 선수권대회 4강에 오르면서 4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권을 획득했고 우즈베키스탄과 결승 길목에서 맞붙는다.

조동현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U-19 대표팀은 8일 밤(이하 한국시간) 사우디 아라비아 담맘 프린스 모하메드 빈 파와드스타 다움에서 열린 대회 8강에서 전반 21분 유지노(전남), 후반 39분 조영철(요코하마

FC), 경기 종료 직전 최정현(연세대)의 연속골로 일본을 3-0으로 완파하고 4강에 안착했다. 이로써 한국은 중국과 0-0으로 비긴 뒤 승부차기 대결 끝에 4-3으로 누른 우즈베키스탄과 11일 오후 10시55분 같은 장소에서 결승행 티켓을 다툰다.

한국은 이날 승리로 2004년 이후 4년 만의 정상 탈환과 함께 통산 12번째 우승을 향해 한 발짝 더 나아갔다. 특히 이번 대회 최소 4위 안에 들면서 내년 이집트에서 열릴 20세 이하(U-20) 월드컵 출전 자격도 얻었다. 한국은 2003년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대회부터 4회 연속 FIFA U-20 월드컵 무대를 밟는다. /연합뉴스

삼성 정규리그 우승

전북 극적으로 6강 PO행



수원 삼성이 정규리그를 제패했고 전북 현대가 극적으로 6강 플레이오프 진출에 성공했다.

차범근 감독이 이끄는 수원은 인천 월드컵경기장에서 치러진 프로축구 삼성하우젠 K-리그 2008 최종전인 26라운드 원정경기에서 백지훈의 선제 결승골과 홍순환의 추가골, 배기종의 쐐기골을 앞세워 한 골 대회에 그린 인천

유나이티드에 3-1 승리를 거두고 정규리그 1위로 챔피언결정전에 직행했다.

통산 세 차례 리그를 제패했던 수원은 17승3무6패(승점 54)를 기록, 포항을 2-1로 꺾어 동률이 된 서울을 꺾었다(현재 수원 +22, 서울 +19)에서 따돌렸다.

서울은 챔피언직행하지 못했지만 정규리그 1, 2위에게 주어지는 내년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출전권을 얻어 위안을 삼았다.

3위 성남은 대구FC와 원정경기에서 1-0

으로 이겼지만 승점 51에 그쳐 2위 탈환에 실패하면서 힘찬한 6강 플레이오프에 나서게 됐다.

25라운드까지 6위였던 인천은 마지막 경기에서 수원의 벽에 막혀 6강 진출 꿈을 접었다.

반면 종전까지 8위였던 전북이 7위였던 경남 FC와 경기에서 극적인 3-1 역전승을 거두고 6위에 턱걸이하면서 막차로 6강 플레이오프 티켓을 따냈다.

전북은 11승4무11패로 승점 37을 보태 승점 37이 되면서 인천(승점 36)과 전북(승점 35)을 끌어내리고 6위로 올라섰다.

이와 달리 부산 수비수 김태영은 울산과 원정경기에서 전반 17분 자책골로 프로축구 통산 1만호골 대기록을 작성하는 비운의 주인공이 됐다.

/연합뉴스